

미국 화장지·중국 석탄·인도 자동차...전 세계 공급난 심각

코로나19 대유행·원자재 가격 상승·자연재해 등 복합 원인 WTO 총장 “수급 불균형 지속...공급난 수개월 지속될수도”

코로나19 대유행, 원자재 가격 상승, 자연재해로 미국, 중국,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자동차부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공급난에 처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물류 대란이 예상되면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공급난이 예상된다.

미국 항공의 병목현상이 지속하면서 화장지와 생수, 옷, 반려동물 사료 같은 필수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에 들어오는 선적 컨테이너 약 40%를 처리하는 로스앤젤레스(LA)와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에는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선박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 LA 항에는 지난달 73척의 선박이 대기해야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기가 없었다고 BBC는 설명했다.

미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나이키 등 동남아시아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공장 문을 닫은 것 역시 미국의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생필

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윌리 쉬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물품이 생산되더라도 (물류난으로) 소매업자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석탄 수급 부족으로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반도체와 생필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공장들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생필품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석탄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가격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클 메이던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박사는 “종이, 식품, 섬유, 장난감, 아이폰 칩에 이르기까

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물품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품귀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발 공급난의 원인은 전력 생산의 전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가격 상승에 원인이 있다. 또 중국 당국의 광산에 대한 새로운 안전 점검, 엄격한 환경 규정,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석탄 생산에 타격을 줬다고 메이던 박사는 설명했다.

인도 역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했다.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의 반도체 공급 부족은 한국과 일본 같은 반도체 생산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도도 수입되는 석탄량이 줄면서 시멘트, 철강, 건설 등 제조업 전반이 공급

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 가격 상승으로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서 인도 일반 가정 역시 식품과 기름 같은 필수품 가격이 상승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이 밖에도 브라질의 커피, 나이지리아의 액화석유가스(LPG), 레바논의 물과 의약품 등이 공급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응고지 오픈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 세계 공급망 문제가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수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선물 ETF 상장 첫날 역대 거래액 2위

유사상품 출시 예고...실물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

미국 최초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데뷔 첫날 역대 ETF 거래액 2위에 오르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유사상품 출시가 연이어 예고돼 있어 비트코인 선물 ETF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프로세서지가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인 ‘프로세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85% 오른 41.9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BITO’라는 종목 코드(티커)로 상장한 이 상품의 거래액은 9억8000만달러(약 1조1549억원)로, ETF 상장 첫날 거래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기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US 카본 트랜지션 레디니스’(카본 펀드)가 수립한 11억6000만달러(약 1조3671억원)다.

블룸버그통신은 BITO가 피델리티의 투자플랫폼에서 최상위 매수 자산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통신은 아울러 시장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연계

ETF 승인을 받는 이가 막대한 돈을 끌어 모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BITO의 데뷔 첫해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약 59조원)로 늘어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TF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다. BITO는 자산운용업체가 지난 8년 동안 가상화폐 연계 ETF를 출시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널은 설명했다.

BITO에 이어 당분간 비트코인 선물 ETF의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과 뉴욕증권거래소는 자산 400억달러 규모의 기존 비트코인 펀드를 ETF로 전환하겠다고 이날 SEC에 신청했다.

이는 비트코인 선물물이 아닌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ETF여서 SEC의 승인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해 실물 비트코인 기반 ETF의 당국 승인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납치·여성 폭력 추방’...거리 시위하는 아이티 여성들. 중미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북쪽 티탄엔에서 19일(현지시간) 갱단의 잦은 납치 사건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갱단에 납치된 해외 선교단의 석방을 요구했다. 갱단은 사흘 전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선교단 17명을 납치해 1인당 100만 달러씩 총 17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96세 나치전범, 1만1천명 학살 가담 혐의로 법정

6만여명 숨진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비서·타자수로 근무

독일 사법당국이 96세 고령의 나치 전범을 1만 1000여명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에서 세웠다. 피고인은 지난달 재판 직전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힌 지 3주 만에 다시 과거사 청산의 심판대로 불려 나오게 됐다고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 이름가르트 푸르히너는 1943~1945년 강제수용소에서 약 1만1000명에 달하는 살인을 조력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서 석다.

그는 18살부터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에 세워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파울 베르너 호페 사령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하면서 잔혹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나이를 고려해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은 이날 아침 스카프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로 독일 북부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이체호의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이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재판이 열리기 직전 도망을 시도해 연기된 이후 3주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시 그는 곧장 경찰에 붙잡혀 5일간 구금됐다. 전자팔찌를 착용한 뒤에야 풀려났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이름과 주소, 과부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뿐 다른 질문에는 답하기 꺼려했다고 변호인 측이 전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나치독일이 1939년 폴란

드 북부 지역에 독일이 세운 이후 6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폴란드인 등을 살해한 제노사이드(종족 집단학살)의 현장이다. 나치는 총살, 굶기, 한겨울에 버려뒀던 밖에서 방치하기, 심장에 직접 유독물질 주입하기, 독가스실에 감금하기와 같은 갖은 잔혹한 수단을 학살에 동원했다.

이달 초에는 나치 수용소에서 일하며 소련군 포로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100세 남성에게 재판도 시작됐다.

독일에서는 2011년 법원이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던 존 템야누크(당시 91세)에게 직접적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분기점으로 작용해 이후 관련 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실질 평균임금 30년간 제자리

韓, 2015년에 日 초월

최근 30년 동안 한국에선 실질 임금이 거의 2배로 급상승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구매력 평가’(불가 수준 고려)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실질 임금은 연 424만엔(1달러=110엔 기준·약 4360만원)으로 35개 OECD 가입국 중 22위라고 20일 보도했다. 1990년과 비교하면 30

년 동안 18만엔(4.4%)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은 30년 동안 실질 임금이 1.9배로 늘어 2015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의 실질 임금은 각각 47.7%, 44.2% 올랐다.

일본에선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최근 30년 동안 중국은 37배로, 미국은 3.5배로, 독일은 2.3배로 성장한데 비해 일본은 1.5배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